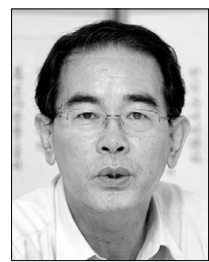


대통령이 바뀌면 경제가 살아난다? 무슨 미신인지 알 수가 없는 소리다. 요즘 경제라는 것은 한 개인의 소신이나 식견에 이리 저리 왔다 갔다 할 수 없을 정도로 그 규모 자체가 엄청나고, 또 전문인과 기업가의 총체적인 노력에 의해 움직이는 것이다. 어찌 한 대통령의 뜻에 의해 그리 쉽게 살아나고 죽고 하겠는가 말이다. 과감한 실천력이 돋보이는 대통령이란 것이 나쁠 것은 없지만, 그 실천력이 쉽사리 경제를 움직인다고 생각하는 것은 우스운 일일 것이다.

또 그렇게 한 개인의 뜻에 의해 쉽게 움직이는 것이 바람직한 것도 아니다. 한 개인의 뜻으로 좌지우지 할 수 있을 경우, 그 뜻이 바르고 목표 설정이 정당하다면 얼마나 다행이겠는가? 그러나 만약 반대라면? 엄청난 추진력과 결단성을 가지고 남들이 뭐라 해도 듣지 않는데, 그 방향이 그릇되다 하면 이 또한 얼마나 큰 비극인가? 새 대통령에게 거는 기대가 큰 만큼 우리 또한 크지 않을 수 없는 일이다.

공업이라 하지 않았던가? 우리가 이룩한 세상은 우리들의 공업이다. 우리들이 모두 이 공업에 대한 인식을 바로 하고, 함께 바꾸어 나가자는 분명한 인식을 갖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싶다. 한 개인의 힘에 의존하려 하다, 만약 그 개인이 잘못 판단하고 움직인다면 어쩔 것인가를 생각해야 한다. 하기는 그러한 결정을 내린 우리의 업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겠지만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지 않은가? 한 나라의 운명이 좌우되고, 그



불자 세상보기

성태웅
건국대학교 교수

대통령이 바뀌면 경제가 살아난다?

운명에 휩쓸리는 온 국민의 고통을 그렇게 한마디로 "우리의 업이니 다행이 받아들이다"라 할 것인가?

우리 역사로 보면 결코 그렇게 될 것 같지 않다. 우리가 뽑은 국회의원과 대통령에 대하여, 그러한 인물을 뽑은 것이 우리의 결정이요 우리의 업이라고 결연하게 반성한 적이 없는 것 같다. 국회 의정활동 가장 열심히 했다고 평가되는 국회의원을, 지역 경조사에 열심히 참여 않고 소홀히 했다는 이유로 다음 선거에서 낙선시키고... 그러면서 국회의원의 자질만을 문제 삼아 온 것이 우리들의 행태가 아니었던가 아프게

반성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 정치가 잘못되고 있다고 하지만, 그런 정치를 용인, 아니 조장한 것이 우리들이 아니었는가를 생각해야 한다는 말이다.

이번 대통령에 대한 어떤 개인적인 지지 여부를 떠나서 하는 말이다. 대통령이 잘못 뽑혔다는 말은 더더욱 아니고, 그러한 대통령을 선출한 시대적 요구가 있었을 것이고, 그에 따른 국민들의 판단을 무시하고픈 생각은 전혀 없다. 그러한 대통령을 선출한 만큼, 그러한 대통령의 장점이 제대로 작동하고 단점은 최대한 억제될 수 있도록, 온 국민이 깨어있는 눈을 지니고 있어야 한다는

말이다. 과감한 결단과 추진력 이전에 충분한 여유를 가지고 합리적이고 올바른 결정을 하도록 하는데 국민의 뜻을 모아야 한다. 그렇게 진정 올바른 방향성이 설정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최고 통치자인 대통령을 도와주는 길이 될 것이다. 그가 가진 장점이 오히려 비극을 초래하지 않도록 최대한 안전장치를 마련해 주고, 그 바탕 위에 그의 장점이 빛을 발하도록 해주어야 한다. 뽑아 놓고는 나 몰라라 하곤, 모든 책임을 뒤집어 씌우는 그런 행태는 이제 바뀌어야 한다. 우리 국민의 정치의식이 높아져야만 정치가 올바르게 된다는 바른 관점에 서야 할 것이다.

이렇게 새 대통령에 대한 기대만 우려반의 이야기를 하면서도, 근본적으로 걱정이 드는 것을 어쩔 수 없다. 그건 바로 이야기 처음에 꺼냈던 '경제'라는 눈에 대한 지나친 강조 때문이다. 오래 전에 "잘 살아보세!"를 외치면서, 다른 모든 것은 다 접어두고 오로지 경제에만 매달렸던 시절이 다시 오는 것인가? 우리 경제가 과연 그렇게 비관적인 상황에 있는 것인가? 이제 문화의 시대라고 하는데 과연 또 얼마나 경제 타격을 진중 중요한 가치들이 무시되고 망각될 것인가?

단지 기우로 끝날 수 있다면 좋겠지만, 너무나 경제 경제하니 이런 걱정이 들지 않을 수 없다. 제발 좀 진중하게, 우리가 지향하는 목표를 바로 정하고, 무뎠던 두뇌를 돌려서 지니는 그러한 정치행보가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

불자의 눈

'매체 감시' 이대로 안 된다

방송매체의 불교편하는 끝이 없다. 지난 12월 29일 SBS가 방영한 '이경규 김용만의 라인업' (이하 라인업)은 산사의 템플스테이가 소재였다. 연말연시의 뜸뜨기 쉬운 분위기를 가라앉히고 한해의 차분하게 마무리하고자 하는 것이 제작의도였다고 한다. 그러나 정작 방송을 본 시청자들, 특히 불자들은 불쾌함과 분노를 터뜨렸다. 출연자들의 말과 행동이 산사와 스님에 대해 지나치게 회화적으로 일관했기 때문이다.

요즘 방송국마다 인기를 끄는 프로그램은 단연 오락물이다. 대부분의 오락프로그램은 '잘 나가' 인기 연기자들이 말과 몸으로 청소년과 시청자들을 TV 앞으로 끌어 들인다. 이 같은 프로그램이 산사를 배경으로 프로그램을 만들었다는 것은 일견 신선하고 고무된 일이다.

그러나 산사와 스님들이 배경이 되는 프로그램이라면 신중해야 할 부분이 적지 않다는 것은 누구나 아는 일이다. 이번 '라인업'의 경우 사찰측이 제작진과 조공이라도 의견을 나눴는지 의심스럽다. 사찰측이 연기자들의 언행을 현장에서 모니터링하고 지나치게 회화될 소지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을 요구했다면 제작 의도에 부합하는 좋은 프로그램이 될 수 있었을 것이다. 방송 후 불교계는 이 프로그램에 대해 아무런 비판도 가하지 않았다.

방송 등 매체에 대한 감시기능이 거의 없는 불교계의 현실을 반성해야 할 때다. 지금 불교계는 새로 들어설 정부에 대해 종교편향 가능성을 염려하고 있지 않은가?

지적재산권, 확실한 교육 필요

그간 불교계에서는 지적재산권에 무관심했다. 불교는 다른 종교에 비해 지적재산을 훨씬 다양하게 소유하고 있고 그에 해당하는 작업도 많다. 사찰 건물이나 예경의 대상으로 조성되는 회화와 조각 등이 다 지적재산을 보호받아야 할 대상인 것이다. 그러나 불교계는 그간 종교적인 차원에서 공유의식이 형성된 탓에 개별적인 지적재산권 주장에 큰 관심을 갖지 않았던 것이다.

그러나 이제 바뀌어야 한다. 건축 조각 회화 음악 무용 등 모든 분야에 걸쳐 저작자의 권리가 법적으로 보호되어야 한다. 불교를 대상으로 하는 저작자의 모든 작품은 종교의 범주 속에서 예술성과 신성성이 함께 인정된다. 그래서 법적 보호의 영역도 분명해야 저작물의 가치가 유지 전송될 수 있기 때문이다.

조계종 한국불교문화사업단이 <불교문화 지적재산권의 현황과 분석>이라는 책을 펴낸 것은 지적재산권에 다소 무감각했던 불교계에 상당한 울림으로 받아들여진다. 책에는 지적재산권의 의미와 적용 범위 등이 자세하게 담겨 있다. 책의 내용을 숙지한다면 뜻하지 않는 지적재산권 분쟁에 휩싸이지 않을 것이다. 또 자신에게 부여된 지적재산권의 범위와 가치 등을 제대로 파악할 수 있다.

차체에 조계종은 이 책을 토대로 전국의 사찰과 스님들에게 지적재산권에 대한 다각적인 교육의 기회를 마련하는 것도 좋을 것이다.



마음이 바뀌면 인생도 바뀐다

46) 그곳에 계신 부처님

작은 기도

제가 밟는 땅과 속 쉬는 공기에서
당신의 지혜를 느끼게 하시며
마음을 아래에 두어
한 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평등심을 갖게 하소서.
다른 이와 내가 틀어 아남을 알게 하시며
세상 만물 중 작은 하나임을 가슴깊이 느끼게 하소서.
살 속에 고통의 바다를 만날 때
당신의 고행을 생각하게 하시며
피하기 보다는 순응케 하시어
스스로 썼던 짐을 스스로 내려놓게 하소서.
걸음걸이 하나에 수많은 생명이 있음을 알게 하시고
살아있는 모든 것을 내 몸같이 아끼게 하시어
함부로 가벼이 여기지 않게 하소서
한마음 거둘 때가 오면 맑은 정신으로 그 때를 맞게 하시어
한순간 낙엽이 떨어지듯 세상에 인연이 다한 날
선한 눈에 선한 웃음으로 그곳으로 갈 수 있게 하소서.



2007년 12월 31일, 사형수 몇 사람이 무기로 감형되었습니다. 그 중에는 10여 년간 진심으로 참회하여 새 사람이 된 불자들도 있습니다. 다음은 무기수로 감형된 한 불자의 시입니다. 이 시들은 그가 여전히 죽음을 대면하고 있던 시절에 지은 것입니다.

그곳에 그 사람이 있다

모두가 외면하는 그곳에 그 사람이 있다.
몸도 마음도 쇠사슬에 묶여
절망의 눈물 흘릴 때,
가만히 손수건 내민 사람이 있다.
내가 어둠이었을 때 자신의 빛이 죄인양 스스로를 깨버린 사람이 있다.
세상의 돌팔매에 멎든 가슴을 감출 때 자신의 가슴을 먼저 보여준 사람이 있다.
내가 삶을 낭비하여 끝을 얘기할 때 따스한 눈으로 시작임을 말해주는 한 사람이 있다.
고통 속에서 증오를 떠올릴 때 더 가까이 다가오는 사람이 있다.
그는 바람처럼 온다 아무런 예고도 없이, 원래 있던 것처럼 그렇게 스며든다.
그는 물같이 스며든다 아무런 소리도 없이, 원래 있었던 것처럼 그렇게 스며든다.
고통과 절망이 있는 곳에 그 사람이 있다.
바람이 되어 물이 되어, 그곳에 그 사람이 있다.

|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 고통과 증오와 업이 사라지는 날까지 항상 그곳에 돌아다니며 자비로서 함께 하시며 지옥중생들을 이끌어주시 모든 부처님들의 은혜에 영드려 감사 올립니다. |

아주 특별한 치유의 세계!!

미국최면의과대학과 학술교류 협정

제32기 최면 「전생요법·빙의치유법」

▶ 안내자료 및 공개특강 비디오를 보내드립니다. (1만원)



국제 공인 최면전문가 자격증 취득 가능

개강안내 1월 18일 10:00~17:00까지

교육과정 매주 금요일 본원출석 7회과정

▶ 과정별 교재 및 실습테이프 제공

▶ 교육 참가비 : 200만원

입금계좌 : 농협 408-01-086128 (예금주: 임병국)

▶ 특전 : 전생상담사증 발급 및 한국최면지도사협회 가입시 정기적 보충교육 실시

수료후 미국최면의과대학 편입학 가능

미국 최면의과대학 객원교수 임재형박사 직강
커버넌트대학교 치유상담학 박사
국제 공인 임상 최면치료사(ICHT)
국제 공인 최면치료사(IMHT)
한국최면지도사협회장
미국 국제최면치유학회 이사
일본 최면의학심리학회 회원
인천교대, 충남대, 청주대, 에서 최면학 강의
공무원 연수원, 군부대, 기업체 등에서 생활최면 특강
KBS, MBC, SBS 등 각종 TV방송에 다수 출연
저서: 자기최면학, 타인최면학, 생활최면, 최면학 총론, 최면요법 등

전생(前生), 사주팔자(四柱八字),빙의(憑依)에 얽힌 삼각관계를 아십니까?

전생의 성적표인 사주팔자는 빙의와도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본 강좌는 사례중심의 시청각 교육 등 많은 임상경험을 바탕으로 철저한 실기위주로 지도하여 그 해답을 통쾌히 풀어 드립니다.

빙의치유법	빙의 영가를 직접 불러내어 누구인지? 왜 들어왔는지? 원하는 것은 무엇인지? 를 대화를 통해 확인할 수 있고 빙의된 본인은 물론 가족들도 영가와 대화를 할 수 있으며 영가가 떠나는 것을 직접 확인할 수도 있다
전생요법	전생체형을 통한 인과응보의 핵심원인을 찾아 전생 업장을 해소하고 현세에 얽힌 인간관계와 원인모를 심리적, 신체적 고통의 단서를 찾아내어 스스로 지혜로운 미래의 삶을 찾게한다.
명리학	사주로 조상영가 보는법... 귀문관살은 정신병이 오기 쉽고, 백호대살은 횡사, 약사로 저승사자가 따라다니며 허약한 사주는 빙의되기 쉽다..... 사주팔자는 전생의 업보로 정해지는데.....전생에 남의것을 많이 빼앗은자는 이생에 재물이 마누라도 빼앗기는 팔자이니 이런사주 근검쟁쟁요.....
최면학	최신최면기법, 심리요법, 명상 자율훈련법, 잠재능력 개발(ESP), 불면해소, 각종 통증해소, 공포증 소거법, 금연금주, 대인공포, 우울증상, 자신감 고취, 열등감 극복 집중력 기억력 초중강법, 알레르기, 자연치유력 활성화 등

驚異 강의를 마치는 즉시 현장에서 바로 활용됩니다.

빙의장애 무료상담

한국최면과학원
홈페이지 : www.hypnos114.com
대전광역시 중구 대성동 248-301 (대전시민회관 후문 청운빌딩 2층)
전화 : 042)255-0734-5